너의 소견으로만 살지 말고 지혜로울 줄 알라

☞ 19면에서 계속

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삼천 년 전에도 불바퀴를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말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삼천 년 전만 아니죠. 단군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81자를 남겨 놨습니다. 인간이 왜 뒤처져서 맨 나중에 나왔느냐고 하신다면, 수많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다른 거는 다 빨리 빨리 컸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그것이 커서 진화되면서 인간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인간이 됐다 합니다. 거듭거듭 진화를 해서 바로 인간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저 수박 겉 핥듯….

보세요! 작년 수박씨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수박이 싹이 났습니다. 싹으로 화했단 말입니다. 싹으로 화했는데 그 씨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 바로 그 씨가 화해서 싹으로 됐기 때문에 그 싹이 수박을 또 열리게 해 가지고 그 수박이 바로 씨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싹으로 나서 이렇게 여러 해 사시고 어른이 됐으니 수박은 벌써 무르익었다 이겁니다. 그대로 부처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말로만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서 여러분을 알아야 부처인지 부처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수박씨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 과거 자기를 찾느라고, 자기 씨를 찾느라고 온통 바깥으로 헤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수박 자체는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과거 씨가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씨가 자연의 불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어라 이겁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과 안에 살과 씨와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과거 씨를 현재에 심고 현재의 씨를 미래에 심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이요, 오늘도 공했노라.

오늘도 고정됨이 없죠? 여러분!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도 여러분이 아내를 만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바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여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시면서도 자동적으로 사시는 그 자체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림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하시라. 그래야 부처님의 그 뜻을, 골수를 아신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의 살을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골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으러 다닙니까? 고깃덩어리는 사대가 흩어지면 그뿐입니다. 누구나가 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네 자신을 알면 내 자신과도 둘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연꽃을 들고 한 팔을 번쩍 쳐들었을 때, 가섭이 싱긋이 웃었을 때 어떤 경과가 있었을까요. 그 이심전심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마음이었습니다. ‘모습을 보지 말라’ 하시고선 연꽃을 들고 여러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자리이며 한 법이고,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두 자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 없이 전달이 되면서 같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살고 있느니라.’ 하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 악도 놓고 선도 놔라.
> 선을 위주로 하면 악이 따르고 악으로 가면 선이 따르니
> 네 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왜 다보탑에 반 자리를 내주셨을까요?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뜻을 가르치고 두 자리가 아니라는 뜻을 가르친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대로만 고집해서, 지금 시대가 변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신 그 용어 그대로 써야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용어로다가 바꿔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감화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처님을 숭상하는 일이고 진짜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신 그 뜨거운, 뼈저린 그 피 한 방울을 500년 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중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선 “500년 후에도 지금과 더불어 똑같이 그 뜻을 반영하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길을 걸을 것이니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볼 때는 삼천 년 전이나 오백 년 후나,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이상 부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부처 아닌 게 부처이지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화두를 들었다 하면 벌써 그건 안 든 겁니다. 내가 좌선을 한다 그러고 앉았으면 좌선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벌써 생각부터 하고, ‘밥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일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똥 눠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니 그 선은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죠.

회양 선사가 마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도 미약해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앞에서, 좌선하는 앞에서 갈았습니다. 가만히 좌선하면서 내려다보니깐 엉뚱하게 선사가 기왓장을 갈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시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되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조 스님은. 저건 무슨 일일까 하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양으로 그렇게 앉았느냐?” 하니까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놈아, 일어나지도 말고 똥도 누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 말아야 선맥이 끊어지질 않지, 일어나면 선맥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우리한테는 거름입니다, 거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의, 지금 이 자리의 거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놓으라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 앞에 있던 목탁을 탁 치고선 나가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동당 서당에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하고 싸우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못 하니까 고양이 모가지를 딱 쳤죠. 나중에 저녁에 들어오신 스님한테 그 말씀을 여쭈니까 아무 소리 없이 짚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선 그냥 슬그머니 나가시더랍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이 지구 바깥을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원자에서도 입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이 허공에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통이 터져서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허공 안에도 그냥 생명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뜨면 강하니깐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터지니까 슬그머니 해서 이렇게 뜨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해 낸 거죠.

정신세계에서 뜨는 비행기는 무엇일까. 앞으로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다가 하던 것을 마음으로, 지금은 단추만 누르면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연구하며 어떻게 우리…. 아니 그건 어디로 갔든지 우리 생활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전전화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무전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각자.

예수도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부터 믿어라.” 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란다고 한데로 모은 거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두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라.” 이러니까 편집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 길을 걸어 보고 그 속을 알아 봐야 알지 자기가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만 살았으니 표현을 하기를 그럴 수밖에. ‘예수만 믿으란다’ 이렇게 썼던 거죠. 하하하….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잘못됐을 거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도 ‘아이구, 이거는 참 죽을 꿈이고 이거는 안 되는 꿈이야.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꿈이 꾸어지나?’ 요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꾸릴 하고선 ‘아이고, 새달엔 언짢대. 석 달 있으면 뭐가 재앙이 온대.’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안의 모든 의식들이 고렇게 따라 주는 겁니다. 따라 주니 그 재앙이 안 오고 배길 수가 있나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70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는 병오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 접수처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 산 지 사 010-5640-8883 이도경
경 남 지 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 북 지 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 청 지 사 010-8341-0560 유재상
강 원 지 사 010-7339-8688 이동격